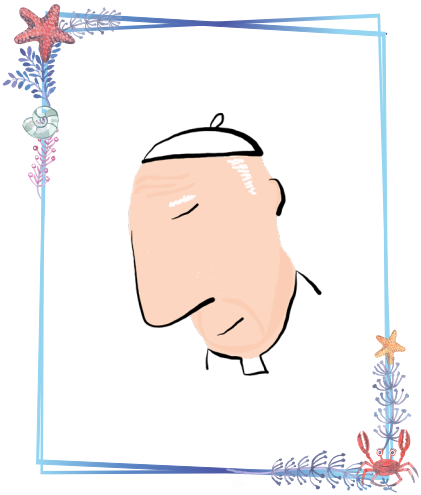
No.1882

하늘마음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라고 말하곤 하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일수는 있어요
무엇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졌냐면요
세상 사람들 걱정,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하는 의무..
하얀 옷처럼 하얗게 변해가는 교황님의 머리카락을 보며 기도합니다.
'교황님! 건강하세요'

2019년 6월 30일 연중 제13주일 (교황 주일) (녹)

제1독서 1열왕 19,16ㄴ.19-21

화 답 송

◎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
○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렁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제2독서 갈라 5,1.13-1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루카 9,51-62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중고등부 (www.foryouth.or.kr)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 회관 106호
발행인 | 박범석 필립보 신부님 **구독신청** | 가톨릭 출판사 (대표전화 _ 1544 - 1886)
미디어부 | 이종민 대건안드레아, 김병수 베드로, 정연욱 소화데레사, 오세용 세례자요한, 강미림 엘리사벳, 문혜지 아셀라, 양유정 미카엘라

종말은 언제인가요?

가톨릭 출판사
《하느님과 트윗을》 중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새로운 시대, 즉 우리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파하고 선포할 때입니다. 우리는 미사 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1코린 11,26)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을 읊조립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희망을 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이들의 육신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대림 시기를 지냅니다. 이 시기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하는 예수 성탄 대축일을 고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영광에 휩싸여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주님, 언제인가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사도 1,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천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실현되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어야 합니다. 동시에, 하느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같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오심을 안달해서도 안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마르 13,31-32)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신흥 종파에서는 계속해서 마지막 때가 언제 올 것인지 자기들이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끝나는 그 시간은 오직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종말의 예언

종말이 언제인가라는, 질문은 수 세기 동안 사람들을 동요하게 했습니다. 종말을 언급한 성경 구절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려 주기는 하지만 이를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루카 21,10-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마지막 날에 도덕적 타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허풍을 떨고 오만하며, …… 선을 미워하고 배신하며, 무모하고 교만하며, 하느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신심이 있는 체하여도 신심의 힘은 부정할 것입니다."(2티모 3,2-5)

깨어 있어라!

이러한 성경 구절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난, 전쟁, 믿음을 잃는 것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글자 그대로 그때가 언제이리라는 것에 대한 특별하고 암호 같은 암시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준비를 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창조의 완성을 기대합니다. "오십시오, 주 예수님!"(묵시 22,20)이라는 기도는 아무리 자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그렇다, 내가 곧 간다."(묵시 22,20)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마르 13,33)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촉구하십니다.

날으는 CYA

Vol.918 | 염현아 안젤라 | zzz-h@hanmail.net

다음 날
오늘은 진짜 공부하자.
부스럭 부스럭
끼뿟
끼뿟
슥삭
항겠습니다!
따르겠어요!
제자가 될거예요!
근데요… 주님
집에 좀 다녀올게요. 할게 있어서.
금방 올게요.
저도요. 밥 좀 차려놓고
나를 따라라.
따를건데 저것 좀 먼저 하고 올게요~
쟁기에 손을 대고 뒤돌아보면 …
휙!
정말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없어.
나는 지금 어떤가요?

1학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20대 CYA 교구회장단

CYA 교구회장 손세희 스텔라

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CYA 친구들! 벌써 2019년의 한 학기가 지나갔어요. 지난 2월 청대연 1과정을 통해 우리는 대표자로서 지녀야할 모습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실천하셨나요?

'소외된 친구에게 먼저 다가갈게요.', '미사에 빠지지 않을 게요', '선입견 없이 모두를 초대할게요.' 등 그때 다짐했던 우리의 약속들.

되돌아보면 지난 한 학기가 만족스러웠던 친구도 아쉬웠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실천이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한 다짐했다고 해서 바로 실행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쉬웠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 또한 지키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아쉽고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것도 좋지요. 하지만 중간점검을 통해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되돌아보며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 고쳐 나가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멋진 대표자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저는 우리 CYA 친구들이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았으면 해요. 지키고자 했던 다짐들을 실천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겐 아직 한 학기가 더 남아있으며 우리들이 교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실 거예요. 모든 CYA 친구들 한 학기동안 수고 많았고 남은 학기도 청소년대표자모임에서 함께 했던 중간점검과 재다짐을 통해 더 성장한 대표자 여러분이 되길 바랄게요! 사랑합니다.

CYA 교구부회장 박은수 마르코

찬미예수님! 사랑하는 CYA 친구들 여러분! 다들 한 학기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중간고사와 쏟아지는 수행평가로 많이 힘들었죠?

저도 학교에서 정신없이 지냈고, 지금까지 3번의 교구상임위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어려움과 부족함도 느끼곤 했어요. 그래도 많이 도와주고 격려해준 세희와 종현이, 간사님들, 잘 참여해준 지구회장단 친구들! 너무 너무 고마워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교구, 지구회장단은 나와는 다른 뛰어난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저 또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 '대표자'의 역할을 맡는 것이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표자로서의 역할은 다른 친구들이 성당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변의 소리를 잘 들어줄 수 있고, 책임감이 있다면 누구나 잘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1학기를 마무리 하면서 남은 학기동안 본당과 지구의 친구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또 본당의 친구들도 본당 대표자들을 따라 주일학교 활동을 잘 해나갔으면 해요. 다들 덥고 습한 날씨에도 주님의 은총으로 시원한 여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곧 다가오는 기말고사도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적도 빛을 낼 수 있기를 바랄게요!

항상 고생해주는 세희, 종현이, 간사님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 신부님들, 수녀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CYA 교구부회장 왕종현 스테파노

서울대교구의 모든 CYA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벌써 2019년의 반이 지나갔네요! 또한 1년의 CYA 활동을 중간점검하는 청소년 대표자 모임도 벌써 끝났어요. 모두들 1학기 CYA 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있나요? 이번 1학기 활동을 하며 각 본당의 CYA 친구들, 본당 회장단, 지구 회장단 친구들 모두 힘든 점도 있었고 즐거웠던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저희 교구회장단도 CYA 교구상임위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돌발 상황도 있어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각 지구 회장단들과 매 달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재미있게 회의를 하는 것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CYA 친구들도 각자 1학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계획 했었겠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미사에 빠지지 않겠다. 등등이요. 야심차게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한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키지 못했다고 후회하지는 않았으면 해요. 1학기를 마무리 하며 미흡했던 부분과 실천하지 않은 계획을 다시 되돌아보고, 2학기 때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더욱 빛나는 CYA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CYA 친구들이 기말고사를 잘보고 1학기를 행복하게 마무리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CYA 친구들!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올바른 믿음과 구원받는 자세

이종민 대건안드레아 (미디어부)
hama0986@naver.com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은 참 어렵죠? 하나씩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의 마을로 가 머무르려 하시지만 거부당하게 되요.

당시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혼혈 민족인데다 혼합 종교를 신봉하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기를 꺼려하였어요. 서로 반목하고 지내던 사이였죠.

갈릴래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도 사마리아인들의 지역을 지나가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었지만 그 지역을 지나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의 마을로 가셨고, 또 분노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이 혈통, 출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시는 중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요.

친구들은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는 것도,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예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참 뜻은 마지막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는 소나 말의 힘을 이용하여 논밭을 가는데 사용하는 농기구예요. 쟁기로 논밭을 갈면서 뒤를 돌아보면 당연히 비뚤어지고 올바르게 갈 수 없겠지요. 쟁기에 손을 댄 것은 하느님 나라의 일을 맡았다는 뜻이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세상일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하느님 나라의 어떤 일을 맡고 있나요?

각자의 본당에서 전례부, 성가대, 미사를 드리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느님 나라의 일을 맡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각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올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